

출판사 | 사옥이 | 도시경관을 |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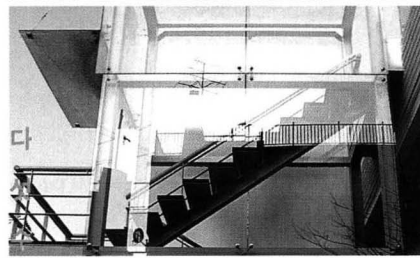


이
레
출
판
사

홍대에서 합정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에 위치. 세련된 하얀색 건물로 시선을 끈다. 1층은 찻집, 2·3층은 편집과 영업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실로 이용한다. 건물 외부와 맞춰 흰색으로 심플하게 구성된 내부 인테리어가 여성스럽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



이레와 멀지 않은 홍대 부근에 위치해 있다.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개념의 인테리어가 압권. 흑색 건물과 백색 건물을 연결해 블랙 앤 화이트를 연출했고 두 건물 사이로는 나무가 들어선 바깥풍경이 다가온다. 건물 1층에 일반독자를 위해 휴식공간을 두었다.



레

서교가든 건너편 서울은행 뒤편에 위치. 오피스 개념보다는 가정집 같은 편안함을 준다. 외부 경관이 시원하게 보이는 통유리와 잔디가 있는 마당, 나무 계단 등이 '전원주택'을 닮았다. 실내 마루도 난방이 되도록 했고, 동네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현관을 늘 열어두고 있으며 담장이 낮아 열린 공간을 추구한다.

도
서
출
판
열
림
원

낮은 책상과 난로, 툇밥난로 위에서 김을 내뿜는 주전자, 쓰러질 듯한 책장에 가득 꽂혀 있는 책들... 사람들의 관념을 지배하는 출판사 풍경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출판사가 변하고 있다. 특히 사옥을 마련하는 출판사들이 집 한 채 마련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아름다운 벽화처럼, 도심 속의 대로변 혹은 골목 풍경을 바꿔가고 있다.

출판사들의 아름다운 사옥 만들기는 기획력만 있으면 출판사도 사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는 단서로 작용한다. 역사가 오랜 출판사에서부터 신생에 가까운 출판사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질투 섞인 부러움을 사고 있는 아름다운 출판사 사옥 몇 군데를 소개한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사

아현동 굴레방다리에서 애오개역으로 가는, 아현도서관 건너편에 위치. 건물 외부는 종이 느낌을 주는 미색으로 치장해 차분하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특히, 내부의 나무결 계단과 어우러지는 꽃나무들, 통유리문 등이 여성적인 느낌을 많이 드러내준다. 손님들을 위해 고풍스런 사랑방이 마련돼 있다.

종로 헌법재판소 위편에 자리. 사원들을 만나온 손님들을 위한 대기실을 1층에 마련했고 2층은 편집부와 회의실로 쓴다. 회의실 창 밖으로 한옥마을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 한국적인 고풍스러움을 늘 대할 수 있어 좋다. 김영사

외서를 주로 담당하는 만큼 도회적인 이미지가 잘 우러나는 출판사다. 긴 나무계단과 회벽색의 색채가 주변의 건물들과 차별화돼 있다. 그리고 블랙톤의 내부 역시 도회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책장과 책장 사이에 편집부 직원들 각각의 업무공간을 배치했다. 블라인드를 올리면 경복궁과 청와대, 삼청동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열린 책들